

본문: 누가복음 2 장 36-38 절

제목: 주님 마중

1.

<엄마 마중>이라는 어린이 책을 아이들에게 자주 읽혀 줍니다. 네 살 정도의 어린 꼬마 아이가 어느 겨울 날 엄마를 마중하러 전차가 다니는 큰 길로 나갑니다. 전차 정거장에서 기사님에게 “우리 엄마 언제 와요?”하고 묻습니다. 기사님들의 시큰둥한 반응에 아이는 그냥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리기로 하죠. 동화책은 마지막 페이지에 눈이 쏟아지는 골목길에 한 손에 한 짐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엄마를 그리며 끝이 나죠.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을 우리 모두는 이해할 겁니다. 어린 시절 엄마는 모든 것이죠. 여기 엄마를 향한 기다림을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기형도라는 시인이 쓴 <엄마 걱정>이라는 시이고 1985 년에 쓰여진 시입니다.

<엄마 걱정> -기형도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시를 들어 보시니, 쓸쓸하고 적막한 기다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엄마는 열무(radish) 30 단을 지고 시장에 가셨습니다. 열무 30 단이라도 팔아야 아이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엄마가 언제나 오실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해는 서산에 지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해가 시들었다.”라는 표현을 썼죠. 엄마가 이고 간 열무와 연결되는 시적인 표현이죠. 방 안에 갇혀 있는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표현을 “찬 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창문 틈으로 엄마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고 빗소리만 처량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아궁이로 불을 피우는 온돌방을 경험하신 분들은 윗목 아랫목의 느낌을 아실 겁니다. 아랫목은 따뜻한 곳이지만 윗목은 차갑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아랫 목을 비워 두고 윗목에서 기다리는 시인입니다.

어린 시절 어지럽고 심란한 우리들의 현실을 수습해 줄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만능이셨죠. 엄마 없는 삶이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란 딱 이 “찬 밥”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들은 자그마치 700 년 동안 다 셋개의 거대한 제국에 의해 점령을 당해 왔습니다. 앗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바로 5 대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점령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들의 처지는 더 비참하게 변해갔습니다. 로마 이전의 제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 주었었죠. 하지만 로마는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황제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견디기 힘든 군중들은 로마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의 중심지였던 세포리스에서는 열심당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로마는 군대를 보냈고 세포리스로 들어가는 길의 양 쪽에 2000 개의 십자가를 세웠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예돔 지역을 다스리던 이방인었던 헤롯의 가문은 로마편에 들러 붙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잔혹하게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 먹기 시작했죠. 헤롯 가문의 통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엄마 잃은 아이들처럼 이제나 저제나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의 비참한 현실은 역전 될 것이라 확신했죠.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들수록 메시아를 더 간절히 기다렸죠.

2.

아셀 지파 사람 안나(Hannah)와 같은 여인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그녀는 결혼 한지 칠 년이 지나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이 12 살이면 결혼을 했다고 하니 안나는 20 살 즈음에 벌써 과부가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보살핌이 필요한 비참한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안나의 삶이 순탄하지만 앓았을 것이라는 것을 '과부'라는 그녀의 신분에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그녀를 소개하면서 누가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절 아셀 지파가 분배 받은 땅은 서북쪽 끝 지중해 연안의 땅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 주의 위치인 거죠. 아셀 지파의 땅에는 두로(tyre)와 시돈(sidon)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켈트족(Phoenicia) 민족이 살았던 무역이 활발했던 지역이죠. 로마 말로 포에니(Poeni, Punica)라고 불리우던 켈트족 사람들이 지배하던 땅을 아셀 지파가 배분 받은 것입니다. 이 지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동네이기에 매우 풍요롭고 잘 사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바로 이 지역 출신입니다. 아주 악독한 여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역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나의 집안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은 브니엘과 같은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아셀지파의 아셀은 히브리어 말 "Asher-행복한 자"라는 뜻입니다. 안나는 헬라식 표현이고 히브리어로는 한나(Hanan)로서 '은총, 은혜'라는 뜻입니다. 안나는 비록 과부였지만 그녀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습니다. 20 살부터 84 세가 될 때까지 그녀는 메시아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누가는 그녀를 헬라어로 '프로페티스(προφητις)' 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여성형입니다.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안나는 60 년 넘는 기간 동안 성전에 머물면서 그곳에 오는 자들의 삶을 깨웠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머지않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예수를 대면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그 구원을 이룰 분이라는 것을 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쓰인 구원은 헬라어에서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소테르(Soter)'가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헬라어 단어는 "뤼트로시스(λύτρωσις)"인데요 값을 치른다는 표현인 '속량(ransom)'에 해당되는

말이지요. 이 아기 예수가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속량할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3.

안나의 60 년이 넘는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그냥 존경스럽습니다. 안나는 알았습니다. '찬 밥' 신세와 같은 그들의 현실을 타개해줄(solve, redeem) 분은 메시아 한 분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기다림으로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그들 마음의 간절한 기다림을 도로 삼아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오실 길로 이해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은 그분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로 오게 만드는 도로와 같은 것이죠.

우리 또한 심란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자본은 이런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가장 위세를 떨치는 힘있는 존재로 여겨지죠. 우리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때론 무엇이 옳은 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오시면 집안의 모든 혼란이 끝이 나듯, 다시 오시겠다던 메시아 주님께서서 어서 오셔서 이 땅을 구속하시기만을 바랄 뿐이죠. 안나는 메시아 예수의 얼굴을 보고 만족하였습니다. 그분이 그들의 민족을 속량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라 확신했죠. 그녀의 간절한 기다림은 아기 예수의 얼굴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탄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갈망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질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분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한 없이 자기를 비우셨고 낮추시어 우리에게 다가 오셨습니다. 안나처럼 우리도 그분을 기쁨으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불안정하고 어지러운 현실 가운데로 그분을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시어 윗목에 버려진 찬 밥과 같은 우리네 현실 가운데 구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둡고 혼란스러운 현실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님을 향한 기다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각성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앙은 이 땅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또한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한 체 나 몰라라 즐기는 환각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은 우리를 깨워 이 땅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게 만들어주죠. 나아가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그 구원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우리를 깨워주는 각성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처럼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우리 삶을 통해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밥을 매우 잘 짓습니다. 특히 냄비에 밥 짓는 것을 매우 잘 합니다. 제가 밥을 잘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들에 나가 일하시는 부모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집에 밥이 없으면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밥 하시느라 또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밥을 해 놓게 된 겁니다. 어머니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과 함께 어머니가 돌아오자마자 밥을 드시게 하고픈 마음이 합쳐진 거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해 놓는 것입니다. 밥을 지어 엄마를 기다리듯이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드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기 위해 노력하는 삶입니다. 멍 때리고 잠자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당황하는 삶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각성시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지키며 밤과 낮으로 금식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그녀는 깨어 있었고 그분의 얼굴을 뵈고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깨어 주님을 맞기를 간절히 갈망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눈길에 앞이 보이지 않아 교회 앞 도랑에 차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토잉 차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우리 삶도 스스로 빠져 나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곧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건져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어린 예수를 기념하는 이 성탄에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